사랑의 날개, 진리를 향하여 날아오르다

: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사랑의 광기

양 운 덕

* 사랑의 광기?

"널 사랑해! 미치도록!"

상대방이 이런 말로 자기 사랑을 표현하면서 열정을 폭발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그대로 '미친 사랑'에 동참하라고 와락 덤비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저 '미친' 사랑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어서 오라 내 사랑! 그곳은 그리 멀지 않아!"

이런 사랑의 광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광기를 사랑의 이름으로 긍정할 수 있을까? 사랑의 광기 앞에서 물러서고, 광기라는 독기를 제거한 '건전한' 상태와 '적절한 배려'로 무장한 안전한 사랑이 필요한가? 그래서 멀쩡한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대상, 사랑의 행위를 건전한 이성의 틀 안에서 마련해야 하는가? 우리가 광기에 놀라서 사랑의 분별력, 사랑의 이해타산을 앞세운다면 이런 질문 앞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파이드로스」에 초대된 뤼시아스는 이러한 사랑의 광기와 무분별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사랑을 권한다. 그는 사랑하지 않는 이의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우정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라면 사랑의 열정과 광기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므로 이성, 절제, 적절한 관계 유지 능력을 발휘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철학적 지혜를 대변하는 소크라테스-플라톤은 사랑의 광기를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사랑의 광기야 말로 아름다움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랑의 광기에 따른 무분별과 사랑의 광기를 통한 영혼의 고양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그는 어떤 점 때문에 사랑의 광기가 영혼의 자기 찾기에 불가결하다고 보는가? 아름다운 육체에 미치도록 빠져드는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이런 사랑의 광기를 진리의 이름으로 절제하는 능력이 없다면 영혼은 자기의 날개를 되찾을 수 없고, 참된 실재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사랑은 어떤 점에서 광기와 진리의 합금을 찾고자 하는가?

*소년이여,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호의를!

플라톤의 에로스 이론은 「향연」과 「파이드로스」에서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색다르게 전개된다.
「향연」은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사랑, 진리에로 나아가야함을 주장한다.
「파이드로스」는 사랑—아름다움—진리의 관계에 주목하면서도 사랑의 내적 동학, '사랑의 광기'에 주목한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사랑에 관한 뤼시아스의 연설과 그것에 맞서는 소크라테스의 두 번에 걸친 연설을 대비시킨다. 이 논의를 따라가면서 신이 선물한 사랑의 광기가 어떤 점에서 진리의 세계로 상승하는 길을 이끄는지, 왜 사랑이 참된 삶을 추구하고 영혼을 고양시키는지를 살펴보자.

대화의 주인공인 파이드로스와 소크라테스는 뤼시아스의 에로스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다. 뤼시아스의 구애자는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이"라고 하면서 미소년의 육체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보다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설득한다. (2

27c/11)3)

이런 주장은 사랑하는 이의 무분별과 광기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이의 사려분별을 대비시키려는 것이다. 곧 사랑하지 않는 이는 (사랑의 열병에 걸린 이의 무절제와 달리) 절제, 이익에 대한 배려, 상대를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품격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질투하거나 감시하지 않는 점에서 현명한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을 좀 더 살펴보자. 사랑하는 이는 욕망epithymia이 사라지면 자신이 사랑하면서 호의를 베푼 것을 후회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고려해서 (강제anankē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덕을 베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들은 자신이 애인을 세상에서 가장 아끼며 모든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지만, 새 애인을 얻고나면 옛 애인을 홀대하곤 한다. 사랑하는 이는 자신이 열병에 사로잡혀서nosein 분별이 없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다.(231a-d/21-2) 사랑하는 이들은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애정을 떠들어대지만,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자제력이 있기 때문에 실속 있게 가장 좋은 것to beliston을 택한다. 사랑하는 이들은 소유욕에서 비롯되는 질투심 때문에 애인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그를 외톨이로 만든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질투를 모른다.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탁월함aretē을 고려해서 필요한 것을 찾고, 이익ōphelia이 될 만한 교제를 유지한다.(232a-d/23-4) 그리고 사랑하는 이는 (애인의 행동보다는) 육체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육체적 욕망이 충족된 뒤에도 우정을 유지할 지 불확실하다. 이와 달리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먼저 친분/우정phila을 맺고 나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귀 기울일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는 사랑하는 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칭찬하는데, 이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뤼시아스의 구애자는 사랑하지 않는 이의 장점들을 내세운다.

"자네가 내 말을 따른다면, 나는 우선 눈앞의 즐거움이 아니라 앞으로 얻을 이익을 고려하면서 자네와 만날 것이네. 나는 사랑에 굴복하지 않고 나 자신을 억제할 것이고, 사소한 일 때문에 크나큰 적대감을 만들지 않고, 큰일을 당해도 천천히 분노를 삭이고, 자네의 본의 아닌 잘못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고의적인 잘못은 막도록 애쓸 것이니, 이런 것들은 친분/우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리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네." (233b-c/26)

소크라테스는 뤼시아스의 주장을 못마땅하게 보고 두 번에 걸쳐 자신의 사랑 이론을 펼친다. 먼저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지 않는 이보다 더 열병을 앓고 있다."(236b)는 주장을 논박하고, 이어서 이 주장을 바탕으로 '사랑의 광기'가 영혼의 본성에 따라서 사랑과 진리의 연관을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랑과 광기가 없다면 영혼의 본성이 참된 삶을 지향할 수 없다.)

---

1)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도 수용되었다. 이것은 군사, 교육 제도에 그 바

탕을 두고, 종교 예식 과 축일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보장된 것이기도 하다. 이 교제의 우수성을 찬양

하는 문학에 의해서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았다.

2) 그리스의 연애술과 관련된 논의는 글의 말미에 보충할 것이다.

3)「파이드로스」의 그리스어 원본과 한글 번역본의 쪽수를 차례로 밝힘.

---

*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욕망이 부르는 혼란

소크라테스는 첫 번째 사랑 연설에서 사랑의 욕망에 따른 장단점을 살핀다. (237b-241d)

그는 첫 번째 사랑 연설을 뮤즈들에게 영감을 청하는 기원으로 시작한다. 연설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소년을 유혹하는 꾀보haumylos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 소년을 사랑하면서도 이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소년에게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설득하고자 한다. 그는 먼저 이야기의 대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면서 시작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랑이 "일종의 욕망epithymia tis(237d), 곧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욕망이라고 본다. 사랑하는 이와 사랑하지 않는 이는 모두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욕망에 이끌린다. 이때 그들을 지배하는 두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쾌락에 대한 욕망emphytos ephithymia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후적인 의견epiktētos doxa이다. 이것들은 서로 다투는데, 그 가운데 의견이 우세해서 이성logōi을 따르면 분별sōphrosynē이 생기지만, 쾌락을 좇는 비이성적인 욕망이 우세하면 무분별hybris에 빠진다. 사랑은 이런 무분별로서, 아름다움에서 얻는 쾌락에 대한 비이성적인 욕망이다. 이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올바른 의견을 억누르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얻으려고 할 때 생긴다.(237d-238c/37-8)

소크라테스는 사랑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에게 호의를 베풀 때 생기는 이익과 해로움을 따져본다.

사랑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이는 "쾌락의 노예 상태"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상대방이 최대한의 쾌락을 주기를 원하므로 상대가 자기와 대등하거나 우월하기 보다는 열등하기를 원해서, 사랑받는 소년이 무지하고 나약한 상태에 머무르기를 바란다. 쾌락 추구를 방해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싫어하고 소년이 재산을 잃으면 오히려 기뻐한다. 그는 소년이 홀로 있고 집도 없이 지내기를 바라기도 한다. 이는 "자기 입맛에 맞는 달콤한 열매를 가능한 한 오래 따먹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239c-240b/42-3)

사랑하는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엉뚱한 칭찬이나 비난을 일삼고 술에 취하면 주사(酒邪)를 일삼는다. 이처럼 사랑하는 이는 사랑하는 동안에는 "해롭고 불쾌한" 존재인데, 사랑이 그치면 그동안 했던 약속들을 저버리고 도망간다. "이제 놀이하는 패의 앞뒤가 뒤집혀서 지난날 사랑했던 이는 처지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려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상대방은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를 뒤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241b/45-6)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친분/우정은 선의애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늑대가 양을 좋아하듯이, 사랑하는 이는 소년을 사랑한다."(241d/46)

소크라테스는 이어서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얻을 이익에 대해서는 말하고자 하다가 말문이 막힌다. 그는 다이몬이 저지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는 그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신들의 하나인) 에로스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을 범한 자는 정화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어야 한다.)

* 사랑의 광기와 영혼의 운명

그는 두 번째 연설을 통해서 사랑의 광기가 지닌 긍정적인 점을 살핀다.

그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보다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더 큰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은 미쳐 있고 다른 이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다."(244a/54)라는 주장이 참이 아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설의 주제는 인간적인 열병nosēmata anthrōpina에서 생긴 사랑과 신적인 일탈theia exallagē이 낳은 사랑이다.

그는 신의 선물로 주어지는 광기의 혜택을 언급한다. 이는 아폴론에게서 오는 예언의

광기. 디오니소스에게서 오는 비의예식teletai을 관장하는 광기, 무사이(뮤즈)들이 관장하는 시인의 광기, 에로스에게서 오는 사랑의 광기를 말한다. 그는 이 가운데 사랑의 광기가 주는 이익을 살핀다.

앞의 이야기가 육체적인 사랑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새로운 이야기는 사랑과 진리의 관계, 사랑-아름다움-진리에 관한 것이다. 이 사랑은 영혼psychē을 이끌어서 영혼의 고향인 이데아 세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영혼을 드높인다.

따라서 사랑 이야기와 함께 영혼의 본성, 영혼의 고향인 이데아세계에 대한 묘사, 영혼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짝을 이룬다.

신들이 광기를 선물하는 것은 큰 행운을 베풀기 위해서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영혼의 상태와 작용을 살펴보자.

영혼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245c-246d)는 영혼의 불사athanasia에 바탕을 둔다. 영혼은 영원히 운동하는 것이어서 죽을 수 없다. 영혼은 다른 것들을 운동하게 한다.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것to hauto kinoun은 모든 운동하는 것들의 원천이자 시원이다. 이러한 운동의 시원은 생겨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것이 생겨나거나 사라진다면 (영혼에 의해서 운동하는) 우주가 멈출 것이다. 영혼에 의해서 운동하는 것들은 그것에 가해지는 작용이 그치면 운동과 삶을 멈출 수밖에 없다. (245c-246a/58-60)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마차에 비유한다. 영혼은 한 쌍의 날개 달린 말들과 마부가 합쳐진 능력과 같다. 신들의 말들과 마부는 좋은 혈통을 타고 났지만, 다른 경우는 뒤섞여 있다. 인간의 경우에 두 말 가운데 하나는 아름답고 좋지만 다른 말은 반대의 성질을 타고 났다.

영혼은 생명이 없는 것들을 돌보면서 우주를 여행한다. 날개가 있는 완전한 상태에서는 높이 날아오르지만, 날개를 잃으면 추락해서 흙으로 된 육체를 취해서 지상에서 거주한다. 육체는 영혼의 능력에 힘입어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전체

는 가사적인 생명체이다. (246b-c/60-1) 4)

영혼은 날개의 능력 덕분에 신들이 사는 하늘로 상승한다. 신적인 것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좋은데, 영혼의 날개는 이런 점 덕분에 영양을 취하고 자란다(추하고 나쁜 것들에 의해서는 날개가 줄어들고 사라진다). (246d-e/62)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마차 여행을 소개한다. 신들과 그들을 따르는 다이몬들은 제우스를 선두로 질서 있게 천궁ouranos을 여행한다. 인간의 영혼들도 이를 따르면서 천궁의 가장자리에서 펼쳐지는 복된 광경을 구경한다. 잔칫날이 오면 신들은 천상의 꼭대기로 수직 상승해서 천궁의 등 위에 올라가서 천궁 바깥의 세계to exō tou ouranou, tp hyperouranion topos를 바라본다. 그곳은 색도 모양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참된 실체가 있는 곳이다. 천궁 바깥의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이다. (이것은 영혼의 인도자인 지성nous에게만 보인다.) 영혼은 참된 것을 관조하면서 영양을 얻고 기쁨을 누린다. 이 순환로 상에서 영혼은 정의 자체, 절제 자체, 인식 자체를 관조thēoria하는데, 이 인식은 생성을 겪지 않고, 참으로 있는 것ontōs on에 속한다. (247d-e/64)

이러한 신들의 삶을 동경하는 인간의 여행에서도 이데아를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여행은 소란과 다툼에 휩쓸린다. 상승하는 능력을 지닌 영혼들은 천궁 바깥을 구경할 수 있다. 이런 영혼은 지성nous과 인식epistēmē으로 양육하는 진리의 평원to alētheias pedion에서 날개의 영양을 얻는다.(248b/65-6) 하지만 다른 영혼들은 부침을 거듭하는 까닭에 이데아계의 일부를 볼 뿐이어서 의견doxa을 영양으로 취할 뿐이다. 그리고 날아오르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데아를 거의 보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다. 신들을 따라서 진상을 본 영혼들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날개를 잃고 땅에 추락한다. 이런 영혼들은 사람의 몸을 얻어서 태어난다.

아드라스테이아의 법칙에 따르면 영혼은 일정한 등급에 따라서 육화된다. ㉮ 지혜를 사

랑하는 이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philokalos, 또는 문예를 아는 이mousikos와 사랑을 아는 이erōtikos, ㉯ 입법가, ㉰ 정치가나 사업가, ㉱ 운동선수와 의사, ㉲ 예언자나 비의 예식 집행자. ㉳ 시인이나 모방 기술자, ㉴ 장인이나 농부, ㉵ 소피스트나 민중선동가, ㉶ 참주tyrannos. (248d-e/66-7)

추락한 영혼이 천상 세계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모든 영혼은 1만년을 채워야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정의롭게 일생을 산 사람은 더 좋은 운명을 얻는다. 지혜를 사랑했던 이들이나 지혜에 대한 사랑을 품고 소년들을 사랑했던 이의 영혼은 잇달아 3번 그런 삶을 선택하면 3천년이 될 때 날개가 돋아나서 지상을 떠날 수 있다. 5)

사람은 다양한 감각에서 시작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된 것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영혼이 신과 함께 여행하면서 있는 것들 너머에서 '참으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보았던 것들을 '상기함'이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이의 정신만이 날아오를 수 있다. 이는 정신이 기억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보존하는 것들과 가까이 하기 때문이다. 상기하는 수단을 바르게 활용하고 완전한 비의 의식에 참여하면 완전해진다. (249c-d/68-9)

---

4) 영혼의 3분 이론에 따르면 영혼은 세 부분-- 이성to logistikon, 기개to tumorides, 욕구to epithymetikon—으로 구성된다. 마차 비유는 이런 3분 이론에 대한 은유이다.

5) 다른 영혼들은 첫 번째 삶을 마친 뒤 심판을 받는다. 다시 천 년 째가 되면 두 번째 삶을 택하는 제

비뽑기를 해서 각자 원하는 삶을 선택한다. 어떤 영혼은 짐승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었던 짐승에서 다

시 사람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

*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랑, 진리로 나아가는 사랑

영혼이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kallos을 보면서 전생에 보았던 참된 아름다움을 상기하면 날아오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곧 아름다움에 대한 체험은 이데아계를 상기하고 이데아계로 영혼이 상승하도록 이끈다.

날개를 원하지만 능력이 없는 영혼은 위를 쳐다보면서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것들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서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 광기는 그것에 동참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광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랑하는 이ho erōn는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이tōn kalōn erastēs라고 불린다.

영혼이 실재를 상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6) "지난날 행복한 코러스와 어울려 제우스의 뒤를 따르면서 복된 모습과 광경을 보고 비의 예식에 참여했을 때에 본 아름다움은 찬란한 빛을 지닌 것이었다. 거기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온전한 상태였고, 다음 시기에 우리를 짓누르는 나쁜 일들도 겪지 않았고, 온전하고 단순하고 흔들림 없는 행복한 광경들을 정결한 빛을 띤 것으로 참관했다. 그때는 정결했고 조개처럼 갇힌 상태에서 '몸'이라고 부르는 무덤에 묻혀 있지 않았다."(250 b-c/ 71-2)

영혼에게는 아름다움의 체험이 필요한데, 이는 아름다움이 가장 밝게 빛나고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갖기 때문이다(물론 지혜phronēsis를 시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아름다움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 경험은 어떻게 사랑의 경험과 맞물리는가? 소크라테스는 두 종류의 영혼을 구별한다. "그런데 입회한 지 너무 오래된 이나 더럽혀진 이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경외심 없이 쾌락에 몸을 던져 네 발 짐승처럼 올라타서 소

년을 낳으려고 한다. 무분별하게 몸을 섞으면서 두려움을 모르고 본성에 어긋난 쾌락 para physin hēdonē을 좇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새로운 입회자, 곧 지나간 것들을 많이 본 이는 아름다움을 모방한 신 같은 모습의 얼굴이나 어떤 몸의 생김새idea를 보면 처음에는 몸을 떨고 지난날 겪었던 두려움 같은 것이 그를 엄습하지만, 그 다음에는 신을 볼 때처럼 경외심을 품고, (마치 신상이나 신 앞에서 하듯이) 소년에게 제물을 바친다. 소년을 바라보면서 땀을 흘리고, 겪어 본 적이 없는 열기가 그를 사로잡는다. 이는 눈을 통해서 아름다움에서 유출되는 흐름을 받아들이면 열이 나고, 그 광채에 의해서 날개의 타고난 힘이 솟아나기 때문이다."(250e-251b/73-4)

이 과정에서 영혼 전체가 달아오르는데, 날개가 돋기 시작하는 영혼은 열이 나고 (이가 나기 시작할 때처럼) "불편함과 근지러움"을 느낀다. 소년의 아름다움에 눈길이 가면 그로부터 부분들(히메로스himeros:갈망)이 떨어져 흘러나와서,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축축해지고 달아오르면서 통증에서 벗어나 환희를 느낀다." 하지만 그와 멀어져서 물기가 마르면 영혼 전체는 고통을 느끼지만 곧이어 아름다운 소년에 대한 기억으로 환희를 느낀다. "이 두 상태가 뒤섞여서 영혼은 감정의 혼란으로 괴로워하며 길을 잃고aporousa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광기의 상태에서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낮에는 안절부절못하고 갈망을 느끼면서 (아름다움을 지닌) 소년을 볼 수 있을만한 곳으로 달려간다."(251c-e/75-6)
그 아름다운 소년은 자신의 '모든 것'이자 영혼의 구원자이고, 자신의 광기를 치료할 유일한 존재이다.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라고 불리는' 감정의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소년을 보고 히메로스에 흠뻑 자신을 적시면 (.....) 통증과 고통에서 벗어나 한 순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한 쾌락의 열매를 얻는다. 마음에 드는 대상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아름다운 소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어머니, 형제,

동무들을 모두 까맣게 잊고 무관심 때문에 재산을 잃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과거에 자랑했던 관습들과 단정한 몸가짐을 무시하면서 기꺼이 노예가 되려고 하고, (...) 아름다움을 지닌 소년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를 큰 노고의 유일한 치료자로 삼는다." (251e-252b/76-7) 7)

---

6) 과거에 있는 것들을 잠깐 보았던 영혼도 그렇고, 지상에서 좋지 않은 교제로 성스러운 것들을 망각한 영혼도 그렇다. 기억을 충분하게 지닌 영혼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들이 천상에서 보았던 것들과 닮은꼴을 보면 그 충격에 넋이 나가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지만,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탓에 그 감동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250a/70-1)

---

* 사랑받는 이를 신처럼

모든 영혼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다. 사랑할 때 각자는 자신이 천상의 여행에서 뒤따르던 신의 행동 방식을 따르고 가능한 한 그를 모방한다.8) 각자는 자기 방식대로 아름다운 소년들에 대한 에로스를 선택하고, 그 소년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고 받들기 위한 신상을 세우듯이 그 소년을 자기 앞에 세우고 치장한다.
제우스를 따르는 자들은 사랑받는 이의 영혼이 신적이기를dion를 원한다. 그래서 그의 본성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도자에 합당한지 살펴보고 사랑하면서 소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253a/79) 헤라를 따르는 자들은 왕의 천성을 타고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알맞은 품성을 가꾼다. 아폴론이나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도 자신들의 신을 좇으면서 자신들의 소년이 그 신의 본성과 같기를 바란다. 그리고 소년을 얻으면 그들 스스로 모방하기도 하고 소년들을 설득하고 맞춰가면서 그 신의 행동 방식과 형

상에 알맞도록 그를 이끈다. "그들은 소년에 대한 질투심도 없고 (자유인답지 않은) 악의

도 없어서 그들 자신들이나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모든 점에서 같은 상태로 이끌기 위해

서 온 힘을 기울인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바람이나 비의예식은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다."(253b-c/80)

이처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는 신과 같아진다. 사랑을 통해서 신들과

동화homoiōsis theōi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는 영혼의 세 부분들 간의 다툼 때문이다.

---

7) 소크라테스는 이런 에로스를 "날개 달린 신"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신, 프테로스ptērōs"라고 부

른다.

8) 제우스의 추종자들 가운데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날개달린 신의 무게를 더 굳건하게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아레스를 섬기고 그와 함께 떠도는 자들은 에로스에 사로잡힌 뒤 사랑받는 자에게 배신을 당

했다고 생각하면 살의를 품고 자신과 소년의 목숨을 빼앗으려고까지 한다.

---

*사랑과 광기와 절제

플라톤은 영혼을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둘은 형태가 말이고. 셋째 것이 마부의 형태

를 갖는다고 본다. 두 마리 말 가운데 하나는 생김새와 품성이 훌륭하지만 다른 쪽은 그

렇지 않다.

훌륭한 쪽은 "생김새가 반듯하고" 분별력과 수치심이 있고 "명예를 사랑하며 참된 의견

을 벗 삼아서 명령과 이치에 따른다". 다른 하나는 "몸이 구부정하고 무거우며 사지가 제

멋대로 붙어있고" 무분별과 거짓을 벗 삼고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채찍과 가시 막대기"가 필요하다. 두 말 가운데 한 쪽은 마부의 말을 잘 따르고 수치심에 못 이겨 사랑하는 이에게 내닫지 않으려고 자신을 억제하지만, 다른 쪽은 막대기와 채찍에도 개의치 않고 함부로 날뛰어서 마부를 곤란하게 하고 소년에게 억지로 나아가려하고 육체적 사랑의 기쁨만을 상기한다. (소년의 별처럼 빛나는 모습에 넋을 잃는다.) (253d-254a/81-2)

마부는 소년의 모습을 보면 아름다움의 본성이 상기되어서 영혼 전체가 뜨거워진다.

"그 아름다움이 절제와 함께 거룩한 발판 위에 서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된다." 그것을 본 마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경외심 때문에 물러선다.9)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소년 앞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고 소년을 따른다."(254e/83)

소년은 가식 없이 사랑하는 감정을 품은 사랑하는 이에게 신처럼 여겨져서 온갖 보살핌을 받다가 그와 교제하게 된다. 사랑하는 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선의는 사랑받는 이를 놀라게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나 일가친척도 바로 그 신들린 친구entheos philos(사랑의 광기에 이끌리는 이)만큼 온전하게 정을 베풀 수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가 시간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면서 운동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교제 가운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그와 가까이하면서 제우스가 가뉘메데스를 사랑할 때 히메로스라고 부른 그 흐름의 원천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옮겨가, 그 가운데 일부는 그 자신에게 스며들고, 일부는 그에게 가득 차 밖으로 넘쳐흐른다."(255a-c/83-5)

그런 아름다움의 흐름은 다시 아름다운 이(사랑받는 소년)에게 되돌아가서 영혼을 변화시킨다. "영혼에 이르러 날개의 출구를 들어 올리고 그것들을 부풀려 날개가 자라게 하고 사랑받는 이의 영혼을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255c-d/85)

그렇지만 그는 사랑을 하고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본성과 정체를 알지 못 한다 aporein. 그는 자기 겪은 일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마치 거울에서 보듯이 사랑하는 이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255c-d/85)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으면

고통을 잊어버리지만, 그가 없으면 상대를 그리워한다. 상대를 그리워하고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가 품은 마주사랑anterōs은 사랑의 이미지eidōlon이다."(255d/85)10)

사랑하는 이들은 서로를 "보고 만지며 입을 맞추고 함께 누우려는 욕망"을 갖는다.
"둘이 함께 누우면 사랑하는 사람의 무절제한 말이 마부에게 말할 거리를 얻고, 오랜 노고의 대가로 짧은 시간의 향유를 요구한다. 소년의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몸이 달아 어쩔 줄 모르면서 사랑하는 이를 껴안고, 마치 가장 친한 친구를 맞이할 때처럼 입을 맞춘다. 그리고 함께 누울 때 요구가 있으면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 몫의 호의를 베풀기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말은 마부와 함께 수치심과 이성을 지니고 이런 일들에 맞선다." (255d-256a/86)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는 그들의 사랑 관계가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될 때에야 비로소 둘 모두 날개를 얻고 영혼의 상승을 바랄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에로스가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 모두를 질서 있는 생활 태도diaita와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으로 이끌기 때문에, 사랑 주체들은 스스로를 억제하고 절도를 지키게 된다고 본다. "영혼의 열등함을 낳는 것을 예속시키고 탁월함을 낳는 것에 자유를 허락한다."(256b/86) 그리고 삶이 끝나면 날개를 달고 가벼워진 상태로 인간적인 분별sōphrosynē anthrōpinē이나 신적인 광기theia mania 가운데 어느 것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베풀 수 없다.(256b/86-7))
이러한 철학자의 삶과 달리 세속적이고 지혜 보다는 명예를 사랑하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거나 방심 상태에 놓일 때) 무절제한 짐승들이 두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무방비 상태에 빠뜨리고 그들을 하나로 결합시킨다. 그들은 많은 이들이 복된 삶이라고 여기는 것을 선택한다. 앞서 말한 철학자들에게는 뒤지지만 이들도 사랑하는 동안이나 사랑에서 벗어난 다음 서로 우정을 맺고, 서로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다.(256c/87)11)

그런데 사랑하는 이의 친분/우정은 크나큰 선물을 베풀어주지만, '사랑하지 않는 이'가

베푸는 친절은 가사적인 자의 분별과 섞여서 사라지는 하찮은 것들에 마음을 쓰고 (대중

이 탁월함이라고 칭찬하는) 예속 상태를 친구의 영혼에 생기도록 해서 "이 영혼으로 하여

금 9천년 동안 땅 주변과 땅 속을 정신없이 배회하도록 한다."(256e-257a/87-8)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앞에서 사랑하지 않는 이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한 바를 논박하면

서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자 진리와 만나는 과정을 여는 점을 강조한다.

---

9) 마부가 사랑하는 소년을 보고 영혼이 뜨거워질 때 본성이 좋고 순종하는 말은 수치심 때문에 자신을

억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은 채찍과 매에도 불구하고 날뛰고 마차를 소년 앞으로 몰고 가서 육체적

인 쾌락을 얻으려고 한다. 좋은 말과 나쁜 말의 다툼은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다. 이런 위험한 싸움

끝에 검은 말이 굴복할 때 비로소 영혼은 육체적인 쾌락에 빠진 상태를 벗어나서 천상의 세계로 날

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얻는다. 곧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의 사랑 관계가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될 때에야 비로소 둘 모두 날개를 얻고 영혼의 상승을 바랄 수 있다. 이들은 진정한 올림피아 경

기에서 세 판 가운데 한 판을 얻은 이들이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단축된다.(256a-b/86)

10) 그는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약한 우정이라고 생각한다.

---

* 욕망에 대한 사랑에서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는 「파이드로스」에서 아름다움 자체를 향한 영혼의 고양을 참된 실재들이 있는 곳을 지향하는 영혼의 귀향으로 본다. 이런 논의는 「향연」에서 제시된 에로스 이론, 특히 디오티마의 에로스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디오티마는 영혼이 아름다운 육체들에 대한 체험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아름다운 것들을 거치면서 보편성의 차원을 얻고 '아름다움 자체'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에로스의 상승 과정을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디오티마는 에로스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이 길은 '아름다운 것들'에서 '아름다움 자체'로 상승하는 길이다.12)

이 길은 육체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는데, (올바른 지도에 따라서) 한 육체를 사랑하고, 이어서 '하나의' 육체에 대한 사랑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한 육체'의 아름다움이 '다른 육체'의 아름다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서 '여러 육체들'에 대한 사랑이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이 동일함을 자각함으로써 특수한 육체에서 육체의 '보편성' 상승한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 육체를 사랑함으로써 육체에 대한 정욕에서 벗어나고, 제도와 법률에서도 아름다움을 보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처럼 '지식에 있는 아름다움'을 봄으로써 아름다움을 '하나의 전체'로 보는 눈을 지니고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최종 목표인 하나의 아름다움, 곧 '아름다움 자체'를 볼 수 있다. (S 210a-e)
이런 '아름다움 자체'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 아름다움 자체는 어떠한 복합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고, 이런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그것과 함께 있을 때에만 덕의 그림자가 아니라 덕을 낳는다. 디오티마는 (현상들의 생멸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진리, 실재와 함께 사

는 자만이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플라톤이 제시한 사랑의 두 이론이 사랑—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진리의 상관성에 바탕을 둔 사랑의 존재론-인식론이고 (성인 남성과 미소년의 비대칭적인 사랑에 바탕을 둔) 기존의 그리스적 '연애술'과는 다른 사랑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은 욕망의 영역에서 출발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는 진리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협력한다. 이런 사랑은 사랑의 광기를 통해서 현상들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진리이자 진리에 대한 사랑philosophia으로 나아간다.

---

11)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날개는 없으나 날아오르려는 충동을 지니고 몸을 빠져나간다. 그들은 사

랑의 광기에서 적지 않은 보상을 받는다. 이는 천궁 안쪽에서 행보를 시작한 자들이 어두운 땅속 길

로 빠져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빛나는 삶을 이어가며 행복하게 동반의 길을 가고, 때가 되면

사랑의 힘으로 똑같이 날개가 생겨난다.

12) 양운덕, 2013, 281-3. 그리고 디오티마의 에로스 이론에 동성애적 계기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

* 미소년에 대한 사랑13)

미소년에 대한 사랑, 그리스적 동성애적 관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푸코가『성의 역사』2

권에서 제시한 윤리적 주체 형성과 성적 쾌락aphrodisia14)의 관련을 주제로 삼은 논의를 참조하자.15)

푸꼬는 왜 소년애가 특별한 도덕적 관심을 끌었는지, 그래서 많은 가치, 명령, 요구, 규칙, 조언, 권고 등의 초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다. (HS, 212)

그리스인들은 욕망이 두 남성 간의 관계를 이끌 경우에 일정한 도덕 형식을 부여하고자 했고, 쾌락을 활용하는 고유한 양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HS, 213) 남성 간의 사랑 대한 도덕적, 철학적 성찰에서 파트너 사이의 연령 차이, 상당한 정도의 신분 차이가 주제로 부각된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의문시하던 관계는 한 쪽의 어리고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소년과 다른 한쪽의 성인 남성 사이의 관계이다. 곧 이미 성장한 연장자--사회적, 도덕적, 성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와 아직 확고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도움이나 조언, 후원이 필요한 젊은이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에 관심을 갖고 배려한다.

성인 남자와 미소년을 결합시키는 관계에서 구애의 관습은 두 파트너가 그들의 관계에 미적으로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행동 방식과 각각의 전략을 규정한다. 이 관습은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의 역할을 규정한다. (HS, 216-7)

한 사람은 주도하는 위치에서 쫓아다니면서 구애하는데 이런 위치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다. 그는 열정을 드러내지만 조절해야 한다. 선물을 주고 보살펴야 하고 애인에 대해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이는 너무 쉽게 굴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나친 찬사를 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고 경솔하거나 욕심 사납게 파트너의 가치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몸을 함부로 내맡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연인이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

이런 관계에서 고유한 매력을 지닌 청년의 육체에 대한 '도덕적 미학'이 있는 까닭에 시

기의 문제가 중요하다. 곧 너무 나이가 든 소년과 교제하는 성인 남자를 비난한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하도록) 사랑erōs의 관계를 우애philia의 관계로 전환해서 대등한 존재로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성인 남성이 소년과 맺는 관계는 사랑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사랑하는 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원칙을 관계 자체, 서로를 이끄는 감정의 움직임과 그들을 상호 연결하는 애정의 본성에서 찾을 수 있다. (HS, 222-223)

소년은 연인 앞에서 독립적인 중심으로서, 신중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거부할 수 있고 (두렵지만 명예로운 거부), 경우에 따라서 수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애술은 이런 타원의 한 중심에서 다른 중심으로 전개된다.

사랑하는 이의 자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이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관계 un rapport de domination sur lui-même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숙고하여 서로를 선택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서 절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소년의 관점에 우선권을 주려는 경향이 있다. (HS, 223-4) 따라서 연애술의 문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입증할 수 있는가'이다.

---

13) 이하의 내용은 (양운덕, 2013) 3-4장의 내용을 참조한 것임.

14) 아프로디지아는 아프로디테의 행위erga Aphrodite로서 어떤 형태의 쾌락을 주는 행위, 몸짓, 접촉이다. (HS, 49)

15) 그리스 도덕은 성적 욕망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 수동적인 무절제에 능동적인 절제를 마주 세운다. 곧 성적 쾌락aphrodisia을 능동적으로 향유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인 노예가 되느냐에 주목한다. 따라서 도덕적 문제는 어떻게 과도한 힘을 지닌 성적 욕망을 자기 나름대로 제어할 수 있는가이다. 즉 욕망을 조절하고 아프로디지아를 적절하게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욕망의 주체로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전략을 문제 삼는다.주체는 '자기의 실천'에서 금욕enkrateia을 목표

로 삼고 무절제에 맞선다. '욕망과 쾌락에 맞서서 얼마나 싸울 수 있는가?' 이 과정에서 자기를 지배하는 능동성을 중시하는 도덕적 태도는 自制maîtrise desoi 능력을 얻고자 한다. 이런 '자기에 대한 배려epimeleia heautou'를 통해서 자기훈련을 쌓은 자만이 가정과 도시국가를 다스릴 자격을 갖는다. 이런 노력과 훈련의 목표는 지혜, 또는 절제 sōphrosunē이다. 이러한 절제는 자유로 이해되므로 쾌락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노예가 되는가 가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능동적인 상태, 타인과 자신에 대한 권력이라는 모델로 자기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한다.

---

*사랑받는 소년의 결정권

아테네인들은 성적 쾌락의 관계에서 지배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시민의 정치 활동에서 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고 본다. 소년은 자기 매력 때문에 사랑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사회적 권한과 지위를 맡아야 한다.

이 점이 아프로디지아와 관련된 그리스 도덕에 불가피한 '소년의 모순'이다. 한편으로 젊은이는 쾌락의 대상, 합법적이고 명예로운 대상이다. 법과 예절에 따라서 소년을 사랑하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비난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년은 성인이 될 것이므로 언제나 쾌락의 대상으로 지배당하는 자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요컨대 쾌락의 대상이면서도 윤리적 주체의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년은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 (HS, 243).

이런 난점과 관련해서 소년에게 특별한 행위가 요구된다. 그는 그가 맡은 역할과 하나가 될 수 없을 때 거부하고, 저항하고 달아나야 한다. 만약 그가 그 역할을 수락한다면, 그가 굴복한 사람의 조건(재능, 지위, 미덕)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지속적인 우애, 미래를 위한 사회적 후원, 수련을 위한 것일 때에는 명예로운 이익이다)에 동의해야 한다. (HS, 246)

"따라서 성인 남자와 소년의 관계에서 성행위는 가능한 한 성인 남자를 멀리 두려는 거

부, 회피, 도주의 놀이를 벌이면서, 그리고 성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질 지를 정하는 교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HS, 247)16)

소년애는 이 사랑을 결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계인 '우애philia'로 바꿀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할 때에만 도덕적으로 명예로울 수 있다--사랑하는 자의 합리적인 친절과 사랑받는 자의 신중한 배려. (HS, 247)

푸꼬는 "어떻게 쾌락의 대상을 훌륭한 자기 쾌락의 주체로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의 영역에서 철학적 연애술, 사랑에 대한 소크라테스-플라톤적인 성찰도 출발한다고 본다. (HS, 248)

플라톤은 사랑관계에 '진리문제'를 근본적인 것으로 도입한다. 따라서 사랑하는 이는 그를 사로잡는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랑하는 이가 미소년에게서 추구하는 것은 그 자신의 다른 반쪽이 아니고, 영혼이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다. 사랑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주제가 되고, '사랑하는 자의 에로스가 참된 것과 관계 맺느냐'에 답해야 한다.17)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연애술은 그리스 성문화를 전복시킨다. 철학은 그리스 문화에서 남성과 소년의 사랑 관계에 따르는 난점에 다르게 답한다.

푸꼬는『향연』에 나타난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주장에서 '사랑의 문제 틀을 변형하는' 점에 주목한다.(HS, 259-268) 이렇게 볼 때 철학은 동성애의 사랑행위의 상호성과 균형의 문제를 사랑의 실재--진리--로 관심을 바꾸고, 사랑 대상에 대한 관심을 '사랑 자체'로 바꾸고, 사랑하는 자와 사랑 받는 자의 불균형에서 진리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틀로, 사랑 받는 소년의 미덕에서 자제력를 행사하는 자(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사랑과 지혜로 관심을 전환시킨다.

---

16) 소년은 연인에 대해서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경탄, 감사, 애정의 감정을 느낄 때에만 자신의 몸을 맡겨야charizesthai 한다. 젊은이는 다른 사람의 욕망과 요구에 동의하지만 항복과는 다른 감정에 의해서 자기 몸을 내 맡긴다. 이것은 감각을 공유하는 것과 다르다. 소년은 정식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느낄 필요가 없다. 너무 조급하지도 않고 억지스럽지 않을 때 그가 굴복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

17)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에로스는 기존 연애술이 명예와 불명예를 구분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고유한 실재'를 되찾는 과정에 주목한다. 곧 초점이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금욕'과 함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놓인다. 기존의 사랑에서 적절한 자제를 바탕으로 한 실천과 쾌락의 활용이 중요했다면, 플라톤의 사랑에서는 참된 대상(진리)으로 이끄는 욕망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지배력으로 쾌락을 적절하게 économique 활용하는 철학적인 방식이다. 따라서「파이드로스」에서 보듯이 영혼이 자기를 지배하고

절도를 지니고, '악을 만드는 것을 예속'시키고 '덕에게 자유를' 주는 투쟁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Platon, Phaedrus, Platonis Opera, (ed) Burnet, J. t. II. Oxford, 1910

pp.227-279 (『파이드로스』, 조대호 옮김, 문예 출판사, 2008.)

_____. Symposium, Platonis Opera, t. II. pp. 172-223.

Foucault, M, Histoire de la sexualité, t. 2 L'usage des plaisirs, Gallimard,

1984. (HS로 표기함)

양운덕(2013),「그리스 성 담론에 나타난 에로스와 윤리적 자기 형성」,『동서철학 심신

관계론의 가치론적 조명』, 손병석 외, 한국학술정보, pp. 275-306.

_____,『문학과 철학의 향연』, 문학과 지성사, 2011.

보충 자료:「향연」의 사랑론에서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찾아서

아리스토파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반쪽 찾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원래 인간들이 남성(태양), 여성(대지), 남-여성(달)의 세 성을 지닌 존재로서 팔이 넷이고, 다리도 넷이고, 똑같이 생긴 얼굴이 둘이고, 음부도 둘이었다고 본다. 이들의 몸은 둥글고 아주 빨리 달리고 (손발이 자그마치 8개이니까요) 무서운 힘을 지녔다. 심지어 그들은 신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신들은 이 골치 아픈 존재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들을 절멸시키는 대신에 '두 쪽으로' 갈라놓기로 한다. 그러면 보다 약해지고, 그 수는 두 배로 늘고, 각자 두 다리로 똑바로 걷게 된다.

각각의 반쪽들은 자기의 잃어버린 다른 반쪽을 그리워하고 다시 한 몸이 되려고 애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만나면 서로 부둥켜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껴안은 채로 죽기까지 한다. 다시 신들은 고민하다가 음부(陰部)를 앞으로 옮겨놓는다. 그래서 인간들은 저희들끼리 자식을 낳는데 남자가 여자 속에 임신하도록 하고, 남자-남자의 경우에는 서로 만나는 것에 만족하여서 '욕망을 진정시켜서' 일하는데 몰두하게 되었다.

이런 신화적 해석에 따른다면, 사랑하기는 원래의 반쪽을 찾아서 온전한 하나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우리 자신은 잃어버린 다른 반쪽을 그리워하는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가 ㅏ랑하는 자기의 다른 반쪽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원래의 성이 3개였으므로 이들 각 경우마다 나누면 얘기가 복잡하다. ① 남-여성에서 나온 반쪽 남자나 여자는 자기의 반대쪽 여자나 남자를 좋아할 것이다. 지금의 '이성애'가 이런 웃지 못 할 사연과 기원을 감추고 있는 것

은 아닌지..... ② 원래 여성이었던 반쪽들은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여자에게 이끌리다가 자기 원래 반쪽을 찾으면 온전한 여인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③ 마찬가지로 원래 남성을 나눈 남자의 반쪽들은 서로 다른 남성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소년일 때는 어른 남성을 좋아해서 그와 포옹하려고 한다. 이런 소년들은 용감한 자들이므로 청소년 가운데 우수한 자들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인정될 것이다.)

어쨌든 ③의 경우에 사랑에 이끌리는 자들은 파렴치하기는커녕 '용기 있는 자들'로 여겨진다. 그들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찾고 반긴다. 그래서 성장해서 정치생활을 할 수 있는 자는 이들 뿐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들이 어른이 되면 소년을 사랑하고 결혼이나 가정에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는다. (다만 관습의 강요로 결혼할 수는 있다.)

그들은 자기와 닮은 자를 사랑한다. 만약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으면 우정, 친밀감, 사랑에 사로잡혀서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이런 틀에서 이성애도 잃어버린 짝을 찾는 과정으로 보려면, 그 반쪽들이 원래 '자웅동체'였어야 한다. 반쪽은 그 둘이 하나로 합쳐야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동그라미처럼 잘 굴러갈 테니까. 자신과 한 몸이었던 異性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서 어렵게 찾아낸 '바로 이 사람'이 원래 자기와 살을 맞대고 있던 '다른-자기'였다니 이런 반쪽들의 만남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아리스토파네스에 따르면, 에로스는 원래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것, 불완전한 존재가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에로스는 '완성을 추구하는 욕망'이다. 단지 좋아서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본래의 내 모습을 찾는 것이다. 물론 이런 노력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래서 남자 동성애의 경우에 사람(남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마다 자기에게 알맞은 소년을 얻고, 본래 지녔던 본성으로 되돌아가서 완전한 사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것은 자기에게 알맞은 소년을 잘 찾

아서 사랑하고 자기 반쪽인 소년을 훌륭한 시민으로 잘 키워야한다.18)

* 사랑의 진리, 진리에 대한 사랑

디오티마는 기존의 에로스에 관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에로스의 '본질'을 제시한다.

먼저 디오티마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질문한다. 에로스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인가?(199 d, e) 그녀는 누군가가 사랑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에로스가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이라면, 그것은 자기가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추구함이다. 예를 들어서 에로스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에로스는 행복이 결핍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면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까닭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고, 선한 것을 지니지 않았기에 선을 추구한다.(201 b, c) 이처럼 디오티마는 '사랑의 수사학'이 아니라 '사랑의 진리'를 추구한다. 에로스의 본질은 무엇인가?

디오티마는 (신화를 빌어서) 에로스가 이중성을 지니고 에로스가 중간적인 존재라고 지적한다. (옳은 의견이 지식과 의견의 중간인 것처럼) 에로스는 선과 악의 중간에 있다. 에로스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선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 반대를 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에로스는 可死的인 것도 不死的인 것도 아닌 중간 존재(daimon)이다.(202 e) 에로스는 인간과 신을 중개하는 자, 곧 인간의 기도와 희생제물을 신에게 전하고 신들의 명령과 보답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자이다. 그것은 중간에서 간격을 메우고 만물을 하나가 되게 한다. 19)

인간은 선한 것을 사랑하고, 가능한 한 영원히 소유하려고 한다.(205b, 206a)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디오티마는 육체와 '정신으로' 아름다운 것을 출산하는 방식을 제시한다.(206b) 이 가운데 정신적 출산이 중요한데, 이는 지성적 능력을 지닌 사람

은 정신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점 때문이다.

사랑은 (맹목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낳으려는 노력이다. 이런 출산은 可死的인 것 속에서 不死的인 것을 추구한다.(207d) 이런 출산은 낡고 늙은 것을 넘어서서 새롭고 젊은 것을 남기려는 것으로서(208b) 자신의 동일성을 시간적 변화를 뛰어넘어서 유지하려는 방식이다. 정신적인 출산으로 '영원의 역사'에 동참하려는 사랑의 노력은 '불사'를 추구한다. 곧 불멸의 덕,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자들은 '불사적인 것을 사랑하는 자'이다.(208 d-e)

정신적 생식력을 지닌 자들은 예지와 덕을 산출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지는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질서를 지배하는 절제와 정의이다. (209b) 신적인 성격과 덕을 지닌 자는 자기의 (정신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를 찾는다. 그는 아름다운 육체를 반기고, 아름답고 고상한 영혼과 사귄다. 그 사람을 사모하고 정신적인 출산을 추구한다. 그는 굳은 우정을 가꾸고 (육신의 자식들보다) 아름답고 不死的인 자식을 공유한다.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불멸의 작품, 뤼쿠르고스의 법) (209b-d)

디오티마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에로스의 궁극적 단계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이 길은 육체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한다.(210a-b) 올바른 지도에 따라서 한 육체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담론을 따라서 '하나의' 육체에 대한 사랑이 영원할 수 없고(이것은 성인과 미소년의 관계를 전제한다), '한 육체'의 아름다움이 '다른 육체'의 아름다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여러 육체들'에 대한 사랑에 눈뜬 뒤에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이 동일함을 자각함으로써 육체의 영역에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상승한다. (210b-c) 그래서 지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 육체를 사랑함으로써 육체에 대한 정욕에서 벗어나고, 교육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제도와 법률에서도 아름다움을 보는 단계로 나아간다(이는 성인 남성이 사랑하는 미소년을 성숙한 존재로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둔다).(210c-d) 제도나 법률에서 '지식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서 아름다움을 '하나의 전체'로 보는 눈을 지니고 '아름다움의 바다'를

알게 된다. 그는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궁극 목표인 하나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자체'를 볼 수 있다. 에로스의 길은 '아름다운 것들'에서 '아름다움 자체'로 상승하는 길이다.(210d-e) 디오티마는 '아름다움 자체'가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고 지적한다.20)

이 상승 과정은 마치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이 세계의 개별적인 아름다운 것들에서 출발하여 아름다움을 향하여 상승한다.(211c-d)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둘, 그 이상의 아름다운 육체들로, 계속해서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나아간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과 활동으로 전환해서, 아름다운 학문을 추구하고 아름다움 자체만을 아는 완전한 학문에서 '아름다움의 완전한 모습'을 인식한다.

아름다움 자체는 어떠한 복합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고, 이런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그것과 함께 있을 때에만 덕의 그림자가 아니라 덕을 낳는다. 디오티마는 그림자가 아닌 진리, 실재와 함께 사는 자는 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하면서 에로스 이론을 매듭짓는다. 21

디오티마는 에로스에 관한 논의를 지혜에 대한 사랑, 철학으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사랑은 연애술과 달리 진리 추구와 맞물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랑이자 사랑의 변증법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에서 술 취한 알키비아데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랑타령을 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소크라테스를 사모하는 청년, 알키비아데스는 취한 상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214e-222c) 그는 소크라테스의 매력적이고 황홀한 언어가 자기 혼을 뒤흔든다고 한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사로잡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며 눈물까지 쏟아집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노예처럼 되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젊고 재능 있는 마음을 물고 늘어져 '지혜를 사랑하는 광기, 열정'에 이끌리게 한다. 알키비아데스는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지만 소크라테스 앞에서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그는 사모하는 열정으로 소크라테스와 단 둘이서 밤을 보낸 얘기를 들려준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마침내 소크라테스와 함께 눕게 된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유혹하고 그를 껴안고

하룻밤을 지낸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를 무시하고 자신의 '꽃다운 아름다움'을 비웃고

모독한다. 그 날 밤 소크라테스와 함께 잤지만 아버지나 형과 잘 때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

문이다. 그는 모욕당했지만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소크라테스의 '자제력과 용기'에 찬

탄한다. 그는 자신이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에 심장을 물렸다고 표현한다.

운' 육체들을 사랑하면서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육체에 대한 사랑은 지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 육체에 대한 사랑으로 상승해야 하고 육체적 아름다움을 넘어선 제도와 지성의 아름다

움에 눈뜨면서 아름다움 자체로 상승해야 한다.

그리고 성인 남성이 미소년을 사랑하는 과정은 사회적 성장 과정, 교육 과정이기도 한데, 이런 사랑 대상

에 대한 배려에서 교육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미소년이 제도와 법률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해야 한다. 곧

이는 성인 남성이 사랑하는 미소년을 성숙한 존재로 교육 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디오티마의 에로스 이론은 그리스 소년애 형식을 전제하고 그것을 주제화하는 양

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18) 아리스토파네스는 너무 남성 동성애만 칭찬한다는 비난을 의식했는지 이 주장이 모든 남자, 여자에게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류가 행복해지려면 완전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각자가 '자기의 소년'을

얻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그는 에로스 신을 경배하는 것이 (남성)인간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19)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은 知者와 無知者 사이에 있다. 지혜란 가장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에

로스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므로, 에로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와 무지의 중간에 있다.

20) 그것은 특정한 곳에서만 아름답거나 때때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것이 아

니다. 이런 '보편성'으로 아름다움 자체는 독립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움 자체'의 일부를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것에 참여할 뿐이다.

21) 이런 디오티마의 에로스 이론에 동성애적 계기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정신적 출산을 강조하는

측면은 물론이고 예지와 덕을 산출하는 사랑, 곧 국가와 오이코스를 지배하는 절제와 정의에 대한 강

조, '하나의' 육체에 대한 사랑이 영원할 수 없다는 지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가운데 육체의 교체에 대한 지적은 성인 남성과 미소년의 관계에 바탕을 둔 그리스 동성애를 두드러지

게 나타낸다. 이런 소년애에서 미소년의 육체는 시간과 함께 성숙하므로 성인 남성의 에로스는 '적절한

시기에' 우정philia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인 남성은 한 사랑 대상을 다른 사랑 대상으로 교체

한다. 디오티마의 에로스 이론에 따른다면, 그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다른 '아름다